

특 집 제41회 도서관주간을 보내며 ①

현재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도서관주간'은 도서관의 설립 및 도서관이용자의 증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제고, 도서관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우리 협회가 1964년에 설정한 주간을 말하며, 시기는 매년 동일하게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이다.
 1964년에 시작된 '도서관주간'은 1967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로 1회 미개최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실시되어 2005년에 마흔번째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전국 각급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왔다. <도서관문화> 5월호 특집란에서는 '제41회 도서관주간을 보내며'라는 주제로 도서관 현장 사서 7편의 글을 실는다. ■ 편집자 주

도서관에 오면 문화가 보인다.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문화기획팀

창밖으로 보이는 신록이 너무나 싱그럽다. 얼마 전까지 각종 봄꽃들이 앞 다투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더니 금새 초록 손을 내보이며 안녕을 고하고 있다.

아름다운 순간은 참으로 짧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 인생에도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가장 치열하게 피어올라야 할 시기가 바로 대학 시절이지 않나 싶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웃지 못할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취업난에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겨 딛고 있다.

각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몇해 전부터 대학 지원자수의 감소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우수한 신입생들의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나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도 대학의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동안 학생 및 교수들의 학습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적 기능에만 모든 전력이 투입되었다면 앞으로는 학술적 기능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할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백인제기념도서관(관장 박재섭)에서는 한시적으로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다. 이는 이용자 중심의 고객 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 때 신설된 팀 중의 하나가 문화기획팀이다.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문화기획팀은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에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생소한 일이라 각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각종 행사부터 시작하여 각 문화단체의 행사까지 폭넓게 파악하였으며 무수한 날들을 인터넷을 통해 우리 도서관에 적합한 행사를 찾아 헤매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먼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05년 한해를 [우리문화, 우리 삶의 소중함 알리기]로 정하고 연중문화행사를 기획하였다.

처음 문화기획의 테마를 [우리문화, 우리 삶의 소중함 알리기]로 잡았을 때 우려되는 점

도 없지 않았다. '우리 것'이라는 말만 들어가게 되면 으레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것으로 치부하는 편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기우였다. 자주 접하지 못하니 잘 모르게 되고, 잘 모르니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어진 것이지, 우리문화 자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다.

준비한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학내에 학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나 준비가 너무 없었구나 하는 반성이 들 정도였다.

문화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행사와 관련된 소장자료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문화경험을 맛볼 수 있게 하였고, 포스터나 팸플릿 등을 자체 제작하여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내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지역시보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행사를 홍보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1. 한국전통타악기공연(3월 8일)



'새학기 힘찬 두드림으로 시작합니다'

학기시작과 함께 문화기획 첫 번째 행사로 문을 연 우리나라 전통타악기공연은 '삼도 설장고 가락'을 시작으로 하는 사물놀이와 모듬북 연주, 동래야류 등으로 구성되어 우리 가락의 흥겨움과 신명을 돌렸다. 이런 전통연희공연을 통해 우리가락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하고, 학생들에게 우리전통연희와 더

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소리의 우수성을 알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은 외국 교환학생들에게도 귀한 체험의 장이 되었다. 올해 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임수정(경영학과 05)학생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 이런 공연들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학교(인제대)가 자랑스럽다"며 즐거워했고, 여종구(김해 삼계동)주부는 "인제대가 지역시민들을 위해 전통공연을 마련해 줘 감사하며 아이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2. 닥종이 인형展(3월 21일-25일)

우리조상의 슬기와 풍취, 생활의 참 멋이 듬뿍 담긴 한지로 만든 닥종이 인형展은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전시였으며 많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관람하였다. 닥종이 인형마다 혼을 불어넣어 놓은 것 같은 섬세한 인물 표현과 우리네 옛 생활상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옛 향수를 느끼게 만들어 전시가 끝날 때까지 두 번, 세 번 찾아오게 만들었다. 관람

객들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에서 유치원생들까지 다양하였으며 연령을 초월하여 닥종이 인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전체 관람객 수는 5일 동안 약 3,700명으로 일일 평균 관람객 수는 740명이었다. 좋은 작품을 전시해 주신 이형숙 원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관람객들이 방명록에 남긴 글들을 참고로 몇 개 소개해 보면,

* 방명록 중에서

- 얼굴에 미소 한가득 떠날 줄을 모르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 시장 아줌마의 곱슬머리,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를 뽑는 장면의 전시물이 가장 인상깊네요. 좋은 전시 너무 감사 드립니다.
- 인제대 도서관 활용도 1000% 최고!
- 3번 보러 왔어요. 표정들이 다 너무 천진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 많이 해주세요. 인제대 도서관 너무 좋아요!!!!
- 시장 풍경이 특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사실적인 묘사와 섬세한 표정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회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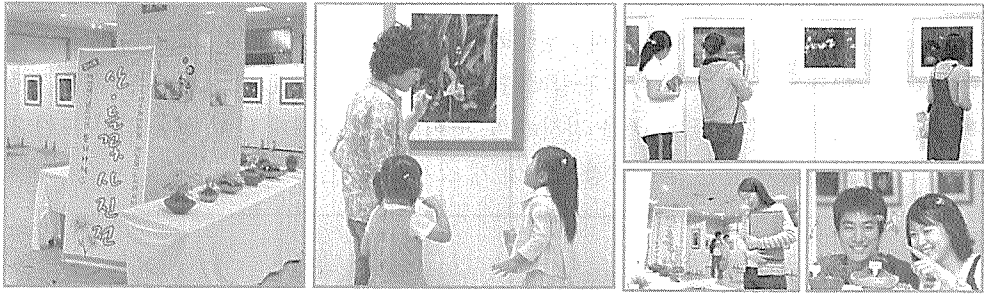


〈닥종이 인형展을 관람하는 모습〉

3. 산·들꽃 사진展(4월 18일-28일)

우리나라 산하에 걸쳐 자생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야생화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시민 및 학생들에게 우리 산하,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산·들꽃(야생화)사진전을 마련했다. 80여 점의 사진과 함께 야생화 실물 12점도 함께 전시하여 사진 속에 갖혀 있는 산·들꽃을 직접 볼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게 준비했다. 야생화 관련 소장자료전시 및 비디오를 전시장 앞에서 상영해서 종합적인 전시가 이뤄지도록 했다. 전체 관람객 수는 약 1,900명으로 일일 평균 관람객 수는 212명이었다.

대학은 문화의 전형을 창출해내는 문화의 산실이며 실험장이 되어야한다. 실험적이고 창조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토대가 닦여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도서관이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즉, 도서관은 학습 연구를 지원하는



〈산·들꽃 사진전을 관람하는 모습〉

학술적 기능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공간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해 12월 도서관내 태크포스팀의 하나로 구성된 문화기획팀은 모두 멀티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센터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기존에 하지 않던 행사의 기획 및 준비에서 진행과 마무리까지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으며 처음 시도되는 일이니 만큼 성공에 대한 부담감도 컸다.

하지만 한 번 잘해 내보자는 각오로 팀원들이 서로를 도와가며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문화기획팀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원들 모두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바꾸어 말하면 자신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고희 계장과 김현 계장은 문화행사의 기획과 공연단체 및 전시자의 섭외, 행사장 세팅과 행사 진행을, 유은미 선생은 각종 홍보용 문안과 강연 원고를, 조선영 선생은 행사용 각종 포스터와 팜플렛, 홍보물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도 많은 행사가 남아있지만 힘이 부칠 때마다 든든한 팀웍으로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5월 야외영화제와 6월 문화탐방 등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문화기획을 되돌아보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그만큼 문화적 욕구가 팽창되어 있었던 반증이라고 본다. 이번 연중문화행사 기획을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알릴 수 있었다.

특히 도서관이 정적이고 수동적인 공간이 아닌 친근하고 적극적이며 가까운 공간으로서 다가가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앞으로 도서관이 학술연구의 장이자 대학문화의 판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백인제기념도서관 문화기획팀 : 좌로부터 유은미, 이고희, 조선영, 김현〉